

65년 만의 기적...매일 만나는 ‘곡성 소아과’ 눈에 띄네

6개월간 2428명 진료...군 전체 아이들 진료 경험

조상래 군수 “전국 기부자들 마음 모여 기적 만들어”

곡성군이 개원한 ‘곡성에서 매일 만나는 소아과’가 6개월 만에 지역 아이들의 든든한 주치의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8일 곡성군에 따르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지난해 8월 출장 전문의가 운영하는 ‘처음 만나는 소아과’를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이어 올해 5월 2일에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곡성에서 매일 만나는 소아과’를 개설하며 65년만의 상시 진료 시대를 열었다.

지난 1965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제도 도입 이후 곡성군은 단 한번도 지역 내에서 민간 전문의 진료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들은 순천·광주까지 왕복 2시간이 넘는 여정을 감수해야 했으며, 응급 상황에서는 더욱 큰 불안이 뒤따랐지만 지역 소아과를 개설하면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지난달 21일 기준 ‘곡성에서 매일 만나

는 소아과’ 누적 진료 인원은 2428명이다. 곡성군의 소아청소년 인구가 약 24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모든 아이들이 지역에서 전문의 진료를 경험한 셈이다.

영유아 건강관리 지표도 크게 개선됐다. 0~6세 소아과 방문율(MMR예방접종 등 수치참조)은 소아과 개설 이전보다 최대 87% 증가했다. 이는 전문의 상시 진료가 영유아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은 개설 100일을 기념해 444명을 대상으로 진료·환경·고향사랑기부제 인식 등 12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추진. 그 결과 ‘소아청소년과 진료 전반 만족도’ 분야에서 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전체 방문자의 60%는 일반진료를 위해 소아과를 찾았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전문의의 친절한 진료’를 가장 큰 만족 요인으로 꼽았다. 또 군민의 73% 이상이 소아과 상시 진료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운

영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기부금이 지역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소아과 개설로 곡성군의 출생아 수도 늘어, 지난 2022년 44명에서 지난해 87명으로 2배 증가했고, 올해도 10월 말 기준 79명을 기록 중이다. 의료 접근성 개선과 심리적 안정이 ‘아이 낳기 좋은 도시 곡성’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상래 군수는 “곡성에서 매일 만나는 소아과는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다. 전국의 기부자들이 보내준 따뜻한 마음이 모여 만들어 낸 곡성의 기적이다”며 “우리는 이곳에서 곡성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모님들이 불안 없이 아이를 키우며, 기부자 여러분의 뜻이 지역의 내일을 밝히는 모습을 매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곡성군은 앞으로도 아이들의 미소가 활짝 피는 도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 단단하게, 더 알차게 소아과를 운영해 나가겠다”며 “고향사랑기부금이 ‘지역을 바꾸는 가장 따뜻한 힘’이라는 것을 계속 증명해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박정렬 기자 holbul@



‘곡성에서 매일 만나는 소아과’가 6개월 만에 지역 아이들의 든든한 주치의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사진은 소아과 진료 모습.

고흥, 지방소멸대응기금 ‘S등급’...88억 확보

스마트팜·소록도 연계 청년 유입 전략 고평가

고흥군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S등급을 받아 88억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을 배분하는 국가 지원 사업이다. 2026년도부터는 평가제

계를 개선해 우수지역 8곳에는 120억원, S등급 11곳에는 88억원, A등급 30곳에는 80억원, B등급 40곳에는 72억원이 지원된다.

고흥군은 지난 7월 사업계획 심사 및 현장 실사를 거친 데 이어 11월 대면 PT 평가까지 통과해 전국 89개 지자체 중 S

등급에 선정됐다.

특히 기금 목적 부합성, 지역 활력 제고, 인구 유입 효과, 지속가능성 등 주요 평가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최근 2년간 총 248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며 전국 2위, 전남 1위라는 성과도 기록했다.

군은 그동안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와 소록도 등 지역 핵심 자원을 연계한 청년 유입 정책을 마련해 왔다.

2026년 기금은 청년 정착 기반 강화, 고령인구 지원, 생활인구 확대, 연계·협력 등 4대 전략 아래 고흥만을 가점으로 한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수산벨리 조성’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공영민 군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취지에 맞춰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운 점이 높은 평가를 이어졌다”며 “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지역 활력을 회복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구례 지리산 기판물’ 생수 출시 된다

250억 투입 생수 생산공장 건설...2026년 말 예정

구례 지리산에서 생산되는 생수가 빠르면 내년 소비자들을 찾아간다.

8일 구례군에 따르면 구례기판물㈜은 최근 전남도로부터 샘플 개발 허가를 취득



에서 취수되는 천연 광천수로 PH농도가 8.0수치에 근접해 약알칼리성으로 일반적인 생수나 음료보다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마그네슘, 칼슘 등)이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평이다.

앞서 구례기판물을 지난 3월 전남도에 먹는 샘물 개발허가를 신청하고, 최근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종합심사를 거쳤다.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자락에 취수정을 개발한 구례기판물은 내년 2월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뒤 사업비 250억원을 들여 생수생산공장을 건설, 빠르면 2026년 말, 늦어도 2027년 초에는 출시에 들어갈 계획이다.

‘구례 지리산 기판물’은 지하 200m

김영택 구례기판물 대표이사는 “저희가 개발한 생수는 약알칼리성으로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으며 소비자들을 위해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지 않도록 종이팩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생수시장은 59개 생수 생산업체, 3조2000억원의 연간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구례=김진기 기자 lkjin@gwangnam.co.kr

‘댕댕순천’ 반려여행 특화도시 시동

시, 반려 동반 프로그램 확대...시민·관광객 호응

순천시가 2025년 반려여행·반려친화 관광 프로그램을 ‘댕댕순천’ 브랜드로 통합하며 반려여행 특화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올해 진행된 다양한 반려동물 동반 프로그램을 하나의 브랜드 아래 체계화한 것이 근교 지역 반려인들의 관심을 이끌어낸 핵심 요인으로 평가된다.

8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오전그린광장에서 열린 ‘댕댕순천 반려동물 행복주간’을 통해 2025 댕댕순천, 애니멀 필름페스타, 반려동물 문화한마당 등 문화·체육행사를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신대지구 생태회랑에서 진행된 ‘댕댕순천 힐링워크’는 6.4km 반려견 동반 산책, 레크리에이션, DIY 체험, 반려견 건강 상담을 결합해 시민들에게 브랜드를 각인시키며 순천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겨울철에도 반려여행 수요를 이어가기 위해 순천시는 12월 순천드라마촬영장에서 ‘댕댕순천, 드라마 속 겨울 이야기’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크리스마스 트리 포토존과 반려견 교복 체험 등 계절형 콘텐츠를 결합해 반려인과 관광객의 발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원, 도심, 생태공간, 촬영장을 잇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절·공간 특성에 맞춰 배치되면서 반려인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순천 방문객의 체류 시간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5년은 ‘댕댕순천’ 브랜드가 도시 전역에 정착한 해였다”며 “시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반려여행 경험을 순천만의 방식으로 계속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2026년에도 ‘댕댕순천’ 브랜드를 중심으로 정원·도심·하천 생태·촬영장을 잇는 관광 루트를 고도화하고, 계절별 반려동물 동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 체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브랜드 홍보와 참여 프로그램 확장을 통해 순천을 국내 대표 반려여행 특화도시로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민족음악 거장 ‘최옥삼’ 창작극

13일 옛장흥교도소 뽀뽀웅zip

장흥군 출신의 민족음악의 거장 최옥삼 명인의 삶을 조명하는 음악창작극 ‘최옥삼’이 오는 13일 오후 2시 장흥 뽀뽀웅zip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최옥삼 명인의 업적을 기리고, 장흥의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하는 뜻깊은 시도로도 평가된다.

최옥삼(1905~1956) 명인은 장흥읍 건산리 태생으로, 남도 음악을 근간으로 해 남과 북을 오가며 민족음악을 완성한 위대한 예인이다.

안타깝게도 그의 고향 장흥에는 생가터에 오직 표지석만이 남아 그의 업적에 비해 제대로 된 기념 공간이나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으로 알려졌다.

문화공간 예술과 창작공간 해우는 최옥삼 명인의 고향 장흥에서 그의 예술 정신을 기리고 널리 알리고자 이번 음악 창작극을 제작하게 됐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을 대표하는 역사적·문화적 자산인 뽀뽀웅zip에서 최옥삼 명인 업적을 재조명하는 공연이 열려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군민들이 문화적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2025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에 공모해 당선된 사업으로 문화공간 예술이 주체·주관하며 전남도와 전남문화재단이 후원한다.

티켓 예매 등 기타 문의사항은 문화공간 예술에 문의하면 된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아이들과 함께 한 ‘미리 크리스마스’ 행사는 어린이들이 산타와 함께 미리 크리스마스를 즐기며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글로벌문화관 3층 옥상 무대에서 열린 캐롤 음악회는 현장 라이브 공연으로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호응을 얻었다.

담양군은 최근 담양글로벌문화관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 40여명을 초청해 ‘옥상에서 놀자(미리 크리스마스)’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산타와 함께 미리 크리스마스를 즐기며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글로벌문화관 3층 옥상 무대에서 열린 캐롤 음악회는 현장 라이브 공연으로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호응을 얻었다.

사진제공=담양군

보성,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전남도 1위...청렴 선도 자치단체 위상 강화

보성군은 전남도가 주관한 ‘2025년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수상은 보성군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강력한 반부패·청렴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입증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남도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종합 평가 제도로,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도, 반부패 제도 인식 제고, 반부패 정책의 지역사회 확산 노력 3개 부문, 14개 지표에 대해 정

량·정성 평가가 이뤄진다.

특히 평가 지표 전 분야에서 고르게 우수한 점수를 기록했으며, 기관장의 청렴도 향상 관심 및 노력, 반부패 제도 인식 제고, 청렴 군민 감사관 제도 도입 및 운영 등 정량 지표 11개 항목 중 10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하며 청렴행정의 역량을 인정받았다.

또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천 노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직자 청렴 실천 결의 및 서약(814명), 청렴해피콜 운영(2323건), 전

직원 청렴 교육·청렴콘서트 개최, 청렴상시 자가 학습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된 점이 우수평가로 이어졌다.

김철우 군수는 “이번 수상은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전 공직자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천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으며, 2024년 제1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부패방지 단체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받은 바 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8@gwangnam.co.kr